

#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010년 1월호

통권 제 198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 12월 교우소식

### 새 가족

- ♣ 김대성·김승신(103구역) 종로구 경운동 SK뷰 1동 705호.
- ♣ 정인복(103구역) 구로구 신도림동644번지.
- ♣ 유혜원(104구역) 종로구 가회동 139번지
- ♣ 이병준(101구역) 종로구 익선동
- ♣ 박경재(207구역) 종로구 신영동 219-3

### 감 사

- ♣ 윤장섭집사·신경희권사, 13일(주일) 점심식사 제공.
- ♣ 이효종·김희진 장로, 독거노인 쌀 10Kg 45포대기증
- ♣ 김영실 조영순 황정희 최서섭 이윤희 27일(주일) 점심식사 제공

### 결 혼

- ♣ 이현수군(이종만·박정희 집사 아들), 12일(토) 오후 1시, 안동교회 분당.
- ♣ 신동석군(신기섭·김형선 집사 장남), 12일(토) 오후 6시,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3층 에메랄드홀(3호선 홍제역 4번출구)
- ♣ 김의열군(김동형집사이인희권사 차남), 26일(토) 오후 3시 AW컨벤션센터(하림각) 그랜드볼룸 (2층)

### 별 세

- ♣ 고 정승모권사(이 진집사·장모·이영은집사 모친 85세 11월 29일 별세 12월 1일 장례)
- ♣ 고 최정자 성도(정연호·김명자교우 시모 66세), 9일 별세, 11일 장례.

### 입 원

- ♣ 최인관집사, 적십자병원 10층 1008호실.

### 축 하

- ♣ 길석현·강성윤교우, 특남 12월 4일
- ♣ 허인열(장은라 권사 딸), KBS시청자 갤러리에서 14일(월) ~ 20일(주일)까지 테피스트리 전시회.

### 이 사

- ♣ 이기주·김미정 집사, 가회동 153번지

### 출 국

- ♣ 박정음장로, 공무출장 LA, 17일(목) ~ 23일(수)

### 교역자 부임

- ♣ 최진오 전도사, 중고등부 교육담당으로 6일(주일)부로 부임 (장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졸업, 장신대 신대원 재학중)

## 세례 및 입교식

지난 25일 성탄의 기쁨과 함께 새로운 영적 생명들이 태어났다. 입교 및 (유아)세례식이 성탄 예배시간에 행해졌다. 세례, 입교자는 아래와 같다.



- 유아세례-곽정윤 김정현 안혜린 유동건  
유소영 윤서연
- 입 교-백기성 백기창 최승배 최예루
- 세례-곽주성 김영순 박은숙 반나영 유영자

## 은퇴 및 추대식

2009년의 마지막 송년주일(27일)예배시, 그동안 장로,안수집사,권사로 충성스럽게 봉사하셨고 이제 정년이 되어서 은퇴하시는 분들과 명예권사로 추대 받으신 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은퇴자와 추대자는 아래와 같다.



- 시무장로 은퇴-조기현 강명준
- 안수집사 은퇴-김경엽
- 시무권사 은퇴-김희동 김순희 김정수
- 명예권사 추대-최현숙 이태평

## 각 교회학교 졸업예배

송년주일(27일)에 각 교회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졸업예배를 드렸다. 유치부는 1년이상, 아동부는 6년, 고등부는 3년의 교육을 마치고 각각 상급과정으로 가게 되었다. 졸업생 명단은 아래와 같다.

- 유치부-윤민섭 이한미 이서진(3명)
- 아동부-배운진 최경현 강한빛 김기림 강지윤  
김마리 노희정 송원용 민경준 권수현  
이정석 김범준 황예진 박경서(14명)
- 고등부-이영권 이재영(2명)

## 추모의 벽 준공식 및 타임캡슐 매립식

100주년 기념사업의 마지막을 장식한 추모의 벽 준공식과 타임캡슐 매립식이 지난 20일(주일) 2부 예배후에 있었다. 추모의 벽은 총 741분 모실 수 있는데 현재 총 신청자는 223분이고 그중 목사님 9분, 장로님 31분, 집사님 41분, 권사님 86분, 성도 56분이다. 그중 남자는 126분이고 여자는 97분이며, 돌아가신 분은 152분이고 71분은 생존해 계신 분이다. 추모의벽의 배치 순서는 약관에 명시된 것처럼 먼저 돌아가신 분 부터 좌측 하단 부터 배치하였으나, 부부의 경우에만 먼저 가신

분을 기준으로 같이 배치하였다. 한편, 매립한 타 임캡슐은 50년 후에 개봉될 계획이다.

## 매년 성탄절이면...

유혜정 교사

매년 성탄절이면 발표하는 아동부 연례행사이지만 금년에는 '아름다운 실버 홈'이라는 노인 시설에서 공연(?)하자는 계획이 있어서 예년 보다는 더 신경이 쓰이는 발표회였다. 그래서 전도사님과 교사들의 회의를 거쳐 연극을 결정 했다. 극본은 전도사님이 쓰시고 윤해숙 선생님의 지도로, 전 학년이 출연하지만 6학년을 위주로 연극을 하고, 합창은 저학년이 하도록 준비를 했다. 졸업을 앞둔 6학년에게 기억에 남는 성탄절이 되길 기대하며.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기말고사 때문에 시간 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11월 중순부터 예배 후 연습이 시작됐고, 5주 동안 주일 예배 후 간식을 먹으며 연습했다. 또한 토요일도 마다않고 나와 연습해준 주연들이 너무도 감사하다.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야단도 치고, 저학년이 울동연습 할 때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며 기특했고, 대본을 모두 외워서 공연하는 6학년을 보고 신기하기도 했고, 또 '주기도문'송을 모두 외워 작은 입으로 노래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새삼 예뻐고 아이들에게 사랑스러움도 느끼며 그렇게 연습했다.

토요일(12월 19일) 총 연습을 하고, 12월 20일 셋째 주일에 공연을 했다. 많은 성도들 앞에서 연기한다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쉽지 않은 경험이였겠지만 기특하게도 담대하게 공연을 잘 끝냈다. 말소리가 작아서 뒤에까지 들리지 않아 조금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교회 공연 후 유치부 동생들과 함께 '아름다운 실버 홈'에서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발표를 했다. 교회 공연보다는 더 자연스럽고 자신 있게(?). 아이들과 시설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지만, 좋은 환경 때문인지 낯설지 않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같이 지내고 장현숙 집사님이 아이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과일과 과자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손을 통해 받을 때는, "할머니! 사랑해요!"를 외치며 껴안는 지용이를 보면서 또 한 번 깜짝 놀랐고,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다. 졸업하는 아이들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을까?

안동의 꿈나무들 화이팅!

## 중고등부의 묵상 - 성탄절을 기다리며

최진오 전도사

'키에르케고르' 라는 철학자는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을 보고 아브라함의 행동이 미쳤다고 평가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각에 긍정하다보면 이것을 명하신 하나님께

의문 부호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행동을 시킨 것일까? 가인의 살인에 분노하셨던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했을까? 왜 시험을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도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피조물이 인간인데,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가장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야겠다는 결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죽여야 하는 심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식의 죽음을 바라봐야 하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이 찢어지셨을 겁니다. 자식을 죽여야만 하는 그 심정,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결정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 아픔 마음을 위로 받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들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나도 내 독자를 아낌없이 저들에게 주는데, 저들도 나에게 사랑하는 독자를 바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

님이 보시기에 그 당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만지시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시험 하십니다. “네 독자를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한 치의 흔들림도 망설임도 없이 순종합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 내 아들 예수를 저들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구나. 내가 사랑하는 인간들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하물며 내 자식을 못 내어주라. 그래. 영원히 너희들은 나와 함께 살자꾸나. 나의 기쁨이 되어다오. 예수를 통해 구원받아 영원히 나를 찬송해다오.”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 우리가 드릴 것은!

김현진 교사

2009년 성탄을 맞아 12월 20일(주일) 1시30분에 교회 학교의 성탄 발표 예배가 본당에서 있었다. 유치부의 김예슬, 정지혜 교사의 사회로 문을 연 성탄 발표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 \* 작년보다 더 많은 인원으로 참여하여 든든한 미래를 짐작케 한 영아부의 찬양.
- \* 감쪽 발랄함의 대명사 유치부 어린이들의 성탄 축하 몸 찬양.
- \* 동방박사들의 선물 의미를 되새기게 한 아동부의 찬양이 가미된 멋들어진 성극.
- \* 중고등부의 귀엽고 화려한 몸놀림을 볼 수 있었던 CCD와 캐롤 메들리.

발표회를 준비한 어린이, 학생들, 교사들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던 성도님들 또한 기쁨을 한가득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준비된 마음과 발표를 기쁘게 받으셨을 그 날의 아기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교회에서 성탄 발표회가 끝난 후엔, 참여했던 어린이들과 함께 평창동에 있는 아름다운 실버홈에 갔다. 그 곳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서 찬양 율동과 연극을 선보이고 왔다. 외로운 분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의 재롱은 기쁨이 되었다. 성탄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어린이들에게

도 그것은 귀한 경험이었다.

우리를 구원코자 인간이 되어 오신 ‘아기 예수님’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찬양과 경배뿐일 것이다. 찬양으로, 춤으로, 연극으로, 찬양 연주로 다양하게 우리의 재능을 살려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성탄의 계절에 점점 더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 본다.

## 사진으로 보는 소식



♣ 안재관 선교사 파송예배



♣ 추모의 벽 준공식



♣ 타임캡슐 매립식



♣ 성탄축하 음악예배

## 총회·연합회·교계 소식

### "빛으로 오신 예수, 온누리에 소망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신종플루의 확산, 지구 온난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 땅에 사랑과 겸손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본받는 기독교인의 삶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2009년 성탄절을 맞아 총회장 지용수목사는 전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성탄절 메시지를 발표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에 밝게 비춰 새로운 소망이 솟아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메시지를 통해 지용수 총회장은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가 밝고 활기차게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책임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해 나가는 선교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며 사랑과 겸손 그리고 섬김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그럴 때에 세상을 주도해 가는 강력한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전세계의 소망이 되는 위대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일을 위해 지 총회장은 "총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주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선교와 3백만 성도운동, 학원선교, 군선교, 농어촌선교, 사회선교, 북한선교, 세계선교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 "올해 우리는 용산 참사와 쌍용차 사태, 신종플루 감염, 지구 온난화 우려, 4대강 사업, 비정규직 양산과 고용 불안, 실업, 미디어법의 공공성 논란, 북한의 핵실험과 남북관계의 단절, 북한 주민들의 기아 등으로 인해 하나님의 평화와 도움을 더욱 간구한 한 해였다"면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하고 연합과 일치에 위해 노력하며 타자를 위한 공동체 임을 자각하고 섬김과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의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 "세상의 방법과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한 궁극적인 문제를 2천 년 전 아기의 모습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하셨다"고 전제하고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죽음의 비참과 불행을 극복했고 흥폭과 탐욕의 역사를 용서와 사랑의 힘으로 변화시키는 역동성을 회복했다"면서 "성탄절은 나눔과 섬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소중한 존재이며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아는 날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 그리스도교 일치와 세계 평화 위해 협력

본교단 총회장 지용수목사(양곡교회)와 조성기사무총장 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전병호) 회원 교회 대표들과 한국천주교 관계자들이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로마 바티칸궁과 영국 런던 램베스궁 등을 방문해 한국 그리스도교의 일치와 화합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교황 베네딕토 16세 등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세계 평화를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지난 2006년에 이어 3년만에 진행된 이번 일치순례에서 방문단은 로마 교황청 및 세계성공회협의회 관계자들과 모임을 갖고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의 한국 개최에 대한 세계교회의

기도와 관심을 당부하며, 교황 베네딕토 16세 및 캔터베리 로암 윌리엄스대주교 등의 한국방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한국에서 일치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많은 개신교 인사들이 먼 곳까지 방문해 준 것에 대해 큰 감명을 받았다"며 기쁨을 표하고, "이번 순례가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는 희망적 기대를 밝혔다.

또한 교황의 환대에 대해 지용수총회장은 "가톨릭 공동체를 포함해 세계 평화를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겠다"고 말했으며, 참석자들은 개신교와 가톨릭이 공동의 기도제목을 가지게 된 것을 돌아가 한국교회와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더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방문은 8일 이탈리아 아사시 순례를 시작으로 9일 바티칸, 10일 교황청 일치평의회와의 협의회, 11일 런던 람베스궁에서의 세계성공회협의회 지도자들과의 만남 및 세계구세군 본부와 영국 감리교 본부 방문 등으로 진행됐으며, WCC 총회를 개최하게 될 한국교회의 위상과 면모를 소개하고 세계 교회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에 대한 방향과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이번 순례에는 본교단 대표 외에도 교회협 회장 전병호목사(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 김현배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윤종모주교(대한성공회 관구장), 권오성목사(교회협 총무), 배태진목사(기장 총무), 김영일신부(성공회 서울교구 교무국장), 김태현목사(교회협 일치협력국장), 김희중대주교(한국천주교 광주대교구), 나창규대신부(한국정교회)가 함께했다.

## 다문화가정, 교회가 품는다

교회를 중심으로 전북 지역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대안학교가 들어선다.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조봉오)는 지난 12월 1일 전북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밑그림을 발표했다. 우선적으로 내년 6월경 전북 부안에 위탁형 대안학교와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이 개설된다. 공모를 통해 학교명을 확정할 예

정. 본교단과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지역 목회자, 사단법인 전북사랑나눔과 성폭력 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등이 공동 추진한다. 총 5백96명의 목회자가 대안학교 설립에 서명했으며 9명의 공동대표중 5명이 본교단 목회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형 대안학교는 초중고 통합형으로 운영돼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학생 등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이주여성들에게 한글과 우리 문화를 가르쳐 줄 전담 교육기관으로 운영된다. 또한 2012년까지는 중고교 과정으로 직업 및 관광문화 교육을 집중 실시할 인가형 대안학교와 생계가 어려운 이주여성 자녀와 결손가정 자녀의 교육을 담당할 24시간 어린이집도 운영할 방침이다. 부안 뿐만 아니라 전북지역 동부산악권인 무주 진안 장수 순창 등에도 이런 시설들을 건립해나가겠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기장 전북노회 노회장 김철동목사(전주성광교회)는 "가난하고 병든 소외계층, 고아와 과부, 외국인 등을 돌보는 것이 목회사역의 중심"이라며 "앞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훈련해 어머니의 나라 선교를 위한 지도자로 키워내고 싶다"고 밝혔다. 김제여중 교사인 조봉오집사(본교단 김제노회 소망교회)는 "2007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인종차별국가로 시정권고를 받은 이후 정부에서도 대안 마련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한 뒤, "다문화가정 자녀 뿐만 아니라 새터민,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 등 사회소외계층을 수용하는 대안학교가 될 것"이라며 교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 "힘든 오지 선교, 의료지원까지 부족"

지난 7일 미취학 아동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18일에는 50만명 분의 신종플루 치료제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에 전해졌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교회와 국민들도 개인위생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오지 선교사들의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 총회 세계선교부(부장:이상섭 총무:신방현)는 지난 15일 대전 대덕교회(이중삼목사 시무)에서 정책세미나를 열고 선교사들의 의료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대도시 주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경우 대사관이나 현지 의료기관을 통해 비교적 원활한 예방과 치료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오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발열이나 사고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날 논의에서는 교단 소속 교회들에서 의료봉사 인력을 지원받아 선교사들이 필요시 전화로 긴급 처치와 병원 선택 등에 도움을 받도록 하는 방안과 타교단 선교부들과 협력해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보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위기상황 발생시 고가의 앰블런스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소개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현재 세계선교부는 선교사들이 가입하고 있는 상해보험 비용 외 추가지출을 가능한 줄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료를 낮추기 위한 협상과 함께 후원 교회들의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선교부는 "총회 파송 선교사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50가정 정도가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오지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먼 거리 때문에 오히려 교회들의 후원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본교단 선교사들이 땅끝을 향해 더욱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교회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 "북한선교, 통로만은 막지 말자"

총회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위원장:김용덕)는 지난 4일 서울역 그릴에서 역대 위원장 간담회를 갖고 94회기의 효율적인 사업방향을 모색했다. 8명의 역대 위원장과 현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는 전국교회 북한선교주일 시행, 남북공동예배 추진, 모금 및 홍보사업 활성화, 북한교회 재건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덕장로(금호중앙교회)는 "정부의 내년도 대북정책을 예의주시하며 구체적인 지원여부를 결정하겠지만 통로만은 막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본교단이 북한선교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

해야 함을 피력하고 역대 위원장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있는 남북한선교통일위는 1대 위원장(제55회 총회) 한경직목사를 시작으로 총 26명의 위원장을 배출했다.

## '고비용' 부총회장 선거 풍토 지적

생명목회실천협의회(회장:손달익)는 지난 17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제2연수실에서 '부총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갖고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맛디아 선출방식을 중심으로 총회 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주제강연을 통해 소기천교수(장신대)는 "한국교회는 부총회장 선거방식이 지닌 단점을 성서의 가르침에 입각해 종합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초기교회가 예수님의 삼원선출방식을 근거로 당시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해 새롭게 적용한 '삼원선거방식'을 폭넓게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르심-선택-임명'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삼원선출방식'에 대해 소 교수는 "예수님과 달리 어느 한 사람의 권위로 맛디아를 세울 수 없었던 초기교회는 이를 '추천-투표-인준'의 '삼원선거방식'으로 적절하게 재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맛디아라는 이름이 신약성서에서 오직 본문에만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총회 부총회장의 후보는 유명한 인물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지역순환제도를 통해 누구나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뒤 이를 위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영균목사(경주제삼교회)는 논찬을 통해 "맛디아 선출방식의 유용한 요인들에 행정학의 제도론적인 이론들을 병행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비교논의를 거쳐 여론의 폭을 좁혀 나간다면 보다 건강한 선거제도를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한편 증경총회장 김태범목사(삼덕교회)는 개회예배 설교를 통해 "우리 선거제도의 최대 약점은 하나님께 개입하실 공간이 없다는 점에 있다. 총회선거 자체가 고비용이며 후보 목회자들의 윤리의식이 너무 낮다"면서 "나 자신도 그중의 한 사람"이라는 자전적 고백으로 눈길을 끌었다.

## 영성가들에게 생태적 지혜를 묻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라는 현대의 심각한 문제의 해결책을 기독교 고전인물들의 사상에서 찾으려는 색다른 세미나가 열려 신학계와 기독교 환경운동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한국교회사학회(회장:임희국)와 한국교회환경연구소(소장:장윤재)는 공동으로 지난 12일 서울신학대학교 우석기념관에서 '교회사를 통해 본 창조, 영성, 자연'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교회사 안에 흐르고 있는 생태사상의 젓줄기를 찾아 현대에 그 지혜를 적용시키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교회사학회와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소속 신학자들이 대거 참가해 생태신학의 눈으로 교회사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사상을 고찰해보는 새로운 시도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세미나에는 고대의 오리게네스, 아우구스티누스 등을 비롯해 중세 수도원과 신비주의 연구가 힐더가르트, 켈트 영성, 프란시스, 종교개혁가 루터와 칼빈, 재세레파, 근대의 웨슬리, 아른트, 블룸하르트에 이르기까지 과거 영성가들의 사상을 생태적 의미에서 재해석했다. 특히 루터, 칼빈 등 종교개혁가들을 생태신학적으로 분석한 것은 교회사학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틴 루터와 생태사상'을 주제로 발제한 권득철 교수(루터대)는 "인간과 다른 창조물 사이의 연대 의식과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창조의 계속성 관점에서 자연은 결코 인간의 소유가 아니며 인간은 단지 모든 창조물을 위탁받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한 루터의 사상을 소개하며 "자연은 인간의 소유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창조와 종말을 경험하

는 동반자와 같은 피조물로서 생명적 차원의 연대를 이루는, 소위 '창조의 사قم'을 이뤄야 할 존중과 보호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칼뱅의 생태사상'에 대해 발제한 이오갑교수(그리스도대)는 "칼뱅은 자연이나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그의 솜씨와 능력, 영광을 깨닫게 해준다는 데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로 인식했다"고 분석하고 "칼뱅은 이에 더 나아가 자연을 하나님의 형상으로까지 말했으며 인간이나 자연은 모두 영적이고 영성을 가진 존재라고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한국교회사학회 회장 임희국교수(장신대)는 "과거를 연구하는 한국교회사학회와 현장에서 현재의 문제를 다루는 기독교환경연대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과거와 현재, 이론과 실천의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행사"라며 "기독교 고전을 통해 문제해결의 지혜를 발견해나가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큰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교회환경연구소 소장 장윤재교수(이화여대)는 "이번 한국교회사학회와의 공동 세미나는 생태 사상의 보급을 위한 것"이라며 "연구소에서 얼마 전 발간한 '현대 생태 신학자들의 신학과 윤리'라는 책자가 현대 신학자들의 사상을 살펴본 것이라면 이번 세미나는 교회사 안에서 생태사상의 원류를 찾으려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 원고와 논찬은 신학생들을 위한 생태사상사 교과서 집필에 활용되어 2월중 신학교에 보급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교회환경연구소는 '녹색의 눈으로 읽는 성서'를 집필 중에 있으며 교회의 녹색 운동을 위한 이론적 뒷받침을 위해 신학적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 [총회·연합회·교계소식]은 한국기독교공보(<http://www.kidokongbo.com/>)를 참고하였습니다.

## 북존우물가

2010년 1월호 · 통권 제198호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발행인 : 황 영 태

편집인 : 안 종 혁

안 재 훈

발행일 : 2010년 1월 3일